

신경제혁명 추진의 의미와 과제

한 승 철(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I. 서언

제주특별자치도정이 2008년을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공무원들도 머리를 싸매 신경제혁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는 대내외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제주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임에 분명하다. 갈수록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로 치닫고 있고, 감글값 하락 등 지금보다 나아질 경제상황이 예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웬 혁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신경제혁명이라는 제주도정의 슬로건,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술하게 제시됐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지금과 같은 공직자의 열정과 관심이 이어진다면 말이다.

사실, 18세기 산업혁명을 떠올려보면, 농업과 수공업에서 공업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이었고,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하게 이뤄짐으로써 인간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제주야말로 ‘신산업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과 감글산업으로 집약되는 제주지역의 단순화된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작금의 제주경제는 한미 FTA체결 등 무한 경쟁시대로의 진행과 지식기반시대를 맞았으나 뚜렷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FTA상황이 시작된다면 제주지역의 기존 산업들은 설자리를 잃어 사실 붕괴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지역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러한 산업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를 지역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산업 육성이란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전략에 따른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행정리더십을 중심으로 각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최소 절반 이상의 행정력을 이제부터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쏟아야 한다.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제조업 비중을 얼마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신산업을 유치 육성할 것인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유치 및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붙잡고 매진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처럼 국내외 기업체와 자본가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다. 국비확보를 위한 정확한 논리로 무장하여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부처 공직자를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부터 진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열정과 역량이 응집된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속도감

을 찾으면서, 제주산업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 산업들은 업그레이드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되고, 신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주경제의 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도 지역경제가 든든히 받쳐지고 있을 때만이 힘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째. 이제부터는 비전과 목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제주의 꿈이 회자되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하고 있는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는 도시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기 보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온 도민이 이제 하나가 되어 신경제혁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제주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신경제혁명의 타이틀을 내건 사실만은 적시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점화된 뉴제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행정과 도민 모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 제주경제상황과 신경제혁명의 의미

1. 제주지역 경제상황

2006년 도내총생산은 7조 5,961억원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 전국 시도별 GRDP의 전국평균 성장률은 5.1%이나 제주는 대구와 같이 1.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6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이 1만 8,553달러이나 제주는 1만 4,631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의 78.8%의 수준인 셈이다.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경로를 간단히 살펴보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감귤생산의 과잉 및 품질저하, 대체과일과의 경쟁 심화, 외국산 과일 수입개방 등으로 감귤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나락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욕구의 변화로 1993년 이후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까지 상향하는 추세를 보인 이후로는 하향 추세를 보여 2006년 현재 0.89%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제주경제 규모의 영세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사정은 어둡기만 하여 젊은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기업유치가 안되다 보니 한번 제주를 떠난 인재들은 영영 제주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처방을 주저하거나 적실한 산업정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의 고착화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2008년 신경제혁명의 원년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제주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나가는 일이어말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신경제혁명의 의미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추진전략으로서 신경제혁명의 슬로건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2008년 신경제혁명의 슬로건은 제주경제의 틀과 소프트웨어를 바꾸어나가는 시작을 의미한다. 즉, 제주적 환경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내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도민과 함께 현 수준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실용경제정책이다.

그리고 신경제혁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제주, 10년 후 먹고 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신경제혁명의 추진전략을 보면 올해를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경제의 체질개선 시작단계로서 제도·정책·의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09년~2010년에는 생산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 이후에는 신경제정책의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경제혁명의 명확한 추진방향과 로드맵과 세부실천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조직은 다소 미흡하지만 신경제혁명호는 발진하였다. 역동적인 신경제혁명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수렴하고, 추진체계를 갖추는 등 총체적인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현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모든 지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특히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감귤값 하락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FTA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도민의 희망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제주도정의 신경제혁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이제부터는 실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Ⅲ. 신경제 정책의 핵심내용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은 그동안 투자자유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전력을 쏟았는지, 어떠한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그 목표치는 얼마인지를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비확보를 얼마큼 성사시켰는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라는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신경제 정책의 목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요 성장전략으로 향후 3년간 연평균 지역총생산(GRDP) 6% 성장 목표를 내걸고 있다. 즉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의 경제상황을 신경제혁명 수단을 통해 역동적 성장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을 살펴 보면 관광산업 3천억원 증대(2조2천억원→2조5천억원), 1차산업 1천8백억원 증대(농업 1천60억원, 축산업 260억원, 수산업 480억원), 건설투자 공공부문 1천767억원 증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유치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당초 570만명 목표를 580만명으로 늘리고, 관광객 유치 마케팅 비용 등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1차산업의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청정농수축산물 마케팅강화 및 명품 브랜드화, 물류혁신 등이 추진된다.

투자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억불 신규유치 및 20억불 투자실현 즉

Twin-Twenty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기업유치단 구성 및 제주투자 기업에 대한 일괄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제주지역에 적합한 식품가공, 요트조선업, 청정 특성 자원을 활용한 건강생물바이오 에너지, 교육·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부실천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및 유가 수준을 전국 16개 시도 중 평균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도 수립되었다.

이러한 신경제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실행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신경제혁명 전담조직이 지난 3월에 신설되었다. 지식산업국에 경제상황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조직개편과 함께 기업사랑과가 탄생했으며 기업유치 추진단 T/F팀이 발족하였다.

도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관광과 경제분야 부서 등을 본청 1층으로 전진 배치한 가운데 1층 기업사랑과 내 종전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업사랑방'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목요일경제회의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 신경제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함은 물론 도내외 경제 단체 전문가 중심의 경제포럼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적시된 신경제혁명 과제는 핵심 과제가 6개분야 20대 과제, 일반과제 4개분야 19대 과제에 이른다. 그런가하면 6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신경제혁명 추진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기존 예산의 재구조화도 모색해 나가게 된다.

여기서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관광분야의 경우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일소를 위한 관광상품 가격 고시제 시행, 관광품질 인증제 시행 및 BEST 10 공표, 관광상품 대폭

적인 할인, 관광마일리지 카드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대형 산지유통센터 10개소 건립 등 선과장 업그레йд 및 개선, 광역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수산물 명품브랜드화, 축산물마케팅 등이다.

제조업 및 신성장 산업분야에는 제주형 제조업 육성차원에서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미숙감귤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 요트조선업, 물산업 육성, 미래 제주형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유통물류분야에는 제주지역과 수도권에 종합물류센터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됨으로써 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기본계획상 신경제 정책의 기초와 실천원칙에서는 신경제혁명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신경제 정책의 기초이다. 첫째, 제주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자율과 시장에 의한 신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모색함은 물론 경제주체간 역할 분담체계를 정립하여 지역경제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인적·물적자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분야,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마케팅 분야,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 유통체계 지원, 그리고 평균적 분배와 무임승차의 관행에서 탈피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경쟁적 발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선진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투자환

경을 조성하고, 각종 기준의 글로벌화를 이뤄 나간다는 것이다.

끝으로 실천원칙을 소개하면 공직자의 실천원칙은 도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된다는 5개항이 수립되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실용경제정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실천원칙은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에 노력한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청정환경 보전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의 실천원칙은 우리 마을을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 관광객과 투자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노력한 만큼 지원받는 자율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IV. 소결

제주의 신경제혁명의 추진은 어떻게 실천하느냐만 남아 있다.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 GRDP 성장목표 6%를 달성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실을 반영한 실천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부단한 노력이 경주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도정의 최근 모습은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데 올인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당연히 시행착오는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제혁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행정력을 경주하는 모습은 도정 역사상 초유의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만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관심들을 표출하고 있고,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뉴제주운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잘사는 마을만들기, 새로운 명품 브랜드 사업 추진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신경제 정책 차원에서 제주관광의 고비용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횡감가격을 비롯해 사설관광지 입장료,

골프장 가격 등을 내린다는 것이다. 가격이 싼 동남아 지역에 관광객을 빼앗기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 신경제혁명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제주경제에 대해 느슨하게 생각했던 관행, 지역산업에 대한 무관심,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비경제적 습성, 글로벌화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멈춰져 있는 사고와 자세가 혁신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노력만 했다고 경제혁명을 이룰 수는 없다.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일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포기하게 된다.

선진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모방해서든지, 부단한 경제공부를 통해서든지 경제적 마인드 체고 및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제주의 키워드로서 2008 신경제혁명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지역경제학자 알버트 허쉬만은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자원은 어느 지역이나 갖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경제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이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제발전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즉, 발전은 주어진 자원과 생산요소들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숨겨져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과 능력들을 발전 목표로 이끌어 내어 정렬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 한해 신경제혁명의 원년을 맞아 제주경제의 새로운 모티브를 창출하고, 제주가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내외 선진지역에 버금하는 경제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용의 물결이 넉넉히 넘쳐났으면 한다.